

저의 이름은 의로울 '의'와 겸손할 '겸'의 의미를 가진 의겸입니다. 나를 과시하지 않고 늘 겸손한 태도로 뛰어남이 있으면 남에게 베풀고, 부족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배우는,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길러주신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스스로 떳떳한,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를 중요시하시던 아버지로부터 저는 스스로의 행동을 성찰하고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되도록 배워왔고, 지금껏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자라왔습니다.

저는 '나의 노력 없이 변화를 기대하지 마라'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에겐 문제를 마주하고 변화시킬 의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가정 문제로 학업과 건강이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를 변화시킨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1년간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던 제가 스스로 운동을 시작했고, 작은 시도가 습관이 되면서 변화를 이루었고 큰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지와 끈기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동에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가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하고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느려도 조금씩, 목표를 향해 정직하게, 성실히 나아간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며 성실하고 정직한 항해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제가 동지해운에 입사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상급자입니다. LPGC 선박에 실습생으로 승선하면서 한 C/O의 자세와 태도에 많은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여러가지 안전을 위한 항해술과 가스선의 하역작업, 하급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항해를 우선시하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스선을 승선하는 사관의 마음가짐입니다. 가스선에 승선하는 사관으로써 매사에 정직함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였으며, 그 모습은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가짐의 가치를 깊이 일깨워주었습니다. 최고의 시니어가 있는 동지해운이자 정직, 성실, 지혜를 중요시하는 이곳에서 저는 함께 승선하며 그 가치를 배우며 스스로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제가 시니어가 되었을 때에는 누구나 믿고 따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새로운 동기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항해사관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